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당신의 내재율

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삶의 연장을 수리 하라는 것이겠지/ 성장만 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움츠려 꿈도 꾸 보라는 명령이었지”(공공규 시)

삶과 세상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새해가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이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을 상상하는 일은 삶을 환기시킨다. 눈앞의 숫자와 코앞의 숙제들, 발목 잡는 현실로부터 잠깐 다녀올 먼 곳, 그런 먼 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살(live) 것인가’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살(buy)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웃었다.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존재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의 무거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여전하고 노동의 가벼움이 더 비극인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계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불만도 가지고 있지만 세계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과연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불안은 존재의 특성 때문에 나오지

만 우리 사회 구조, 즉 차별과 배제 때문에도 나온다. 도대체 나의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이제 이 고민은 세계 도처를 떠다닌다.

우리 주변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으나 불행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것은 너의 이야기였다가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가 된다. 자기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며 누구한테도 잘못된 일도 괴로움을 끼친 일도 없었던 어느 날 문득 부리가 부러지듯 나쁜 일을 겪는 것이다. 그 일로 꿈이 부서지고 삶이 무너져 내려 낯선 추위와 어둠속을 걷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부리가 다시 자라나는 기적이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단지 자신의 처지와 아픔을 알아보고 보듬어 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네 삶은 위안을 받는다고. 조라하고 험let는 존재들이 서로 손을 내밀어 부축하고 기뻐할 때 무너진 삶을 들어키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니 힘든 때일수록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사적 자원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고 존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인격적 존엄과 인생의 품격을 지켜 나가려고 분투하는 사람이려면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 가는 것과 동시에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은 존엄한 삶의 명령이다.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은 무엇일까. 광범해진 내면을 추스르려고 발

버둥치는 인간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살피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삶을 가꾸는 꾸준한 습관이고 하나는 내 안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 물을 향해 밀려오고, 꺾임을 짓기 위해서 굽은 자기 몸무게의 50만 배나 되는 바닷물을 몸을 통해 흘러보낸다. 1킬로그램의 끈을 얻기 위해 별은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사람의 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시간을 견뎌 온 것들 속에는 신성이 깃드는 법이다.

‘습’(習)이라는 한자에는 ‘절룩거리며 가는 모양’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습자하는 서툰 예술가들이다. 평범한 우리가 혹시 비범해질 수 있다면 그것 끝없는 반복과 되풀이, 무수한 ‘도다시’를 통해서일 것이다. 반복이 이어지면 언젠가 스스로 리듬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노래하듯 말하면 덜 버벅거린다. 춤추듯 걸으면 잘 안 넘어진다. 리듬 때문이다. 차고 기우는 달과 절마다 바뀌는 별자리가 우주의 리듬이라면, 계절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는 꽃들이 대지의 리듬이라면, 우리 자신도 하나의 문체이자 운율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세심하게 읽히기를 기다리는 한 권의 책! 부디 당신의 내재율을 찾아 스스로 춤추는 날들이 인생의 흑한기를 이겨 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

법조칼럼



강동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행복의 빈도

났구요.

맛이 없어도 손가락을 드는 건 오직 제정성을 글썽여 여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을 만들어 먹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생존의 수단을 갖췄다는 생각에 웬지 모를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여백을 채워 판결문을 완성하는 일 외에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 행위가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내일 아침 뭐 먹지?’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걱정보다는 작은 기대가 담긴 명제가 돼버렸습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 여운이 오래 남아 삶과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저의 부족한 경험과 상식의 폭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동주’가 그런 영화입니다. 시인에 대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종교구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찾아갑니다.

그 덕에 골목골목 서촌의 매력도 알아 갑니다. ‘별 헤는 밤’에서 시인이 되뇌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남자라는 사실, 어렵פות이 제목만 알고 있던 ‘말테의 수기’ 작가이자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점에서 그의 유럽 여행기를 발견하고 반갑게 책을 집어듭니다. 밑줄을 좋아했던 또 다른 시인, 백석의 시와 생애, 사랑이야기도 나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나 타샤, 당나귀, 대원각, 김상사 등의 키워드가 머릿속에 제시태고 됩니다.

온전히 작품에만 몰입하고 싶어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가족에게 미안함을 풀을 필요가 없어 영화관을 찾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개봉 예정 영화를 꼼꼼히 검색하고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는 재미 속에서 영화를 애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각합니다.

배드민턴에 입문했습니다. 광주법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법원 옆 초등학교 강당에서 일주일 1~2 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판사, 직원들과 게임도 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배드민턴의 큰 매력입니다.

함께 맘 흘리는 즐거움이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밀어낸 듯합니다. 아예 통증에 침을 맞기도하고, 발목을 접질려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기 고



이양무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지적 재조사 사업’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국책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물량에 맞춰 매년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및 소요 비용의 70%는 지적 측량 업무, 그리고 사업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역 주민 교육·홍보 및 동의서 징구, 청산, 성과 및 지적 공부 정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관리 업무 수행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지적 관련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적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 분야의 전문 인력이 1만 여명 이상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7500여 명(지적측량 공무원 35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895명)이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3000여 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만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2017년 지적측량 공무원의 신규 채용 인원을 260여명으로 전례 없이

증원해 채용한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상반기 70명, 하반기 106명 등 176명의 지적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향후 연차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8년 160명, 2019년 173명 등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전문 인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라는 대명제 하에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지적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시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대비해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 입시 때 지적 분야의 학과가 각광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지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청주대학교를 포함해 4년제 2곳과 동강대학교 등 2년제 8곳이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매년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의 경우 지난 1978년 토지정보관리과를 개설해 40여 년 동안 1500여 명의 국토관리 주요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현재에만 지적측량 공무원 25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기술인 238명을 비롯해, 법인산하 등기측량 공무원, 철도청 지적측량 공무원, 지하철거설본부 지적측량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측량 등에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항공 드론 조종사 면허와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며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정보 빅데이터 분석사, 공간 정보를 3차원 도면에 영상화하는 지도 제작사 등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전문 자격 획득을 위해 지도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만,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한다.

社 說

수원열병합발전소 백연 피해 실태 조사부처

광주 수원지구 일부 주민들이 수원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백연(白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굴뚝 27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탓에 인근 주택가에 황색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건물이 변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백연은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났을 때 과포화된 수증기가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수원 에너지(주)가 운영하는 수원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0년부터 천연가스(LNG)를 이용해 수원지구 등 총 4만 여 가구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 인근 해솔마을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황색 물방울이 떨어져 주택과 차량이 잇따라 노랗게 변하고 있다. 광산구에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4차례나 접수됐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해 6월 발전소 굴뚝에서 대기를 측정해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17ppm)을 검출했으나

기준치(50ppm) 이하라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주민은 수원 에너지 측에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백연 현상은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물방울로 발전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 분쟁은 결국 주민의 요청으로 광주시 환경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됐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발전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회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차량 색깔을 변하게 하는 오염 물질이 환경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인체에 쌓여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과 피해 조사를 통해 불안감을 덜어 주는 게 우선이다. 백연 현상은 시각적으로도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악의 취업 한파...민간 기업 협조 있어야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인 일본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광주와 전남의 고용률(지난해 12월 기준)만 봐도 59.5%와 60.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실업률 역시 각각 2.1%와 2.7%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전기·통신·금융업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5000명이 줄었고, 전남은 광공업·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 3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7.6%와 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736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산은 전년보다 7.9% 늘렸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도 일

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12.6% 늘린 19조 2312억 원으로 잡았다.

이처럼 정부가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공무원 등을 비롯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인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를 일지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여기에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협조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더 이상 고용시장을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졸자 급여 격차를 줄여 고용 시장의 이중 구조를 없애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無 等 鼓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젊은 시절 승려 생활을 했다. 워낙 가난했던 데다 나이 열일곱 살 되던 해 큰 가뭄에 전염병까지 돌면서 가족이 모두 죽어 갈 곳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안휘성(安徽省)의 황각사(皇覺寺)에 들어가 탁발승이 되었다. 이후 주원장은 명나라의 제왕이 되었지만, 불우했던 시절 한때나마 ‘머리를 박박 밀고 다녔던’ 대머리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렸다. 신하가 올리는 상주문 속에 흑시라도

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샤(Elisha)도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구약의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엘리샤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샤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골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사발(甕)이나 대머리(禿) 자가 들어 있으면 저왕을 비꼬는 말’이라며 이유를

대머리 차별

는 모두 ‘대머리’라고 놀림을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모욕감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우리 사회에 대머리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불을 본 듯 대지처럼 달라달라 써왔다. ‘빛나다’ ‘밝다’라는 말은 물론 촛불이나 램프라는 말조차 싫어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대머리’라고 놀림을 당하고 그 신하의 목을 쳤다. 중국 루쉰이 쓴 소설 ‘아Q정전’의 주인공 아Q는 대머리다. 조금 모자라지만 착하기 그지없는 아Q는 자신을 ‘부족함이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누구든지 대머리라는 의미의 ‘퇴’(頹) 라든가 그 비슷할 발음을 하는 것을 들으면 불을 본 듯 대지처럼 달라달라 써왔다. ‘빛나다’ ‘밝다’라는 말은 물론 촛불이나 램프라는 말조차 싫어했다.

주원장 같은 제왕이나 아Q와 같은 날품팔이 농민만 ‘대머리’ 콤플렉스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사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인 사 220-0551 (FAX 222-0195) 사 회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